

# 8월 출생아 수 1만8천여명...동월 기준 첫 2만명 붕괴

### 33개월만에 가장 큰 폭 감소 사망자 수, 출생아 수 웃돌아

월별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2만명 이하를 기록하는 등 감소세가 심상치 않다. 더욱이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46개월째 인구는 줄어들고 있다.

올해 8월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 대비로 33개월 만에 가장 큰 폭 감소해 1만명대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8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1만8984명으로 1년 전보다 2798명(-12.8%) 줄었다.

2020년 11월 3673명(-15.5%) 감소한 이후 2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8월 기준으로 출생아 수가 2만명을 밑돈 것은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전년 동월 대비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6년 넘게 줄다가 지난해 9월 13명 늘었다. 그러나 이듬달부터 다시 11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인 조출생률은 작년보다 0.6명 줄어든 4.4명이다. 조출생률 역시 8월 기준 가장 낮은 수준이다. 시도별로 출생아 수는 전북(+5명)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감소했다.

통계청 임영일 인구동향과장은 "8월의 경우 작년과 2021년에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기저효과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출생아 수는 8월 기준 지난해와 2021년에 각각 2.2%, 0.5% 줄었다. 8월 사망자 수는 3만540명으로 작년보다 500명(1.7%) 증가했다. 전년 동월 대비 사망자 수는 지난 5월(0.2%)부터 증가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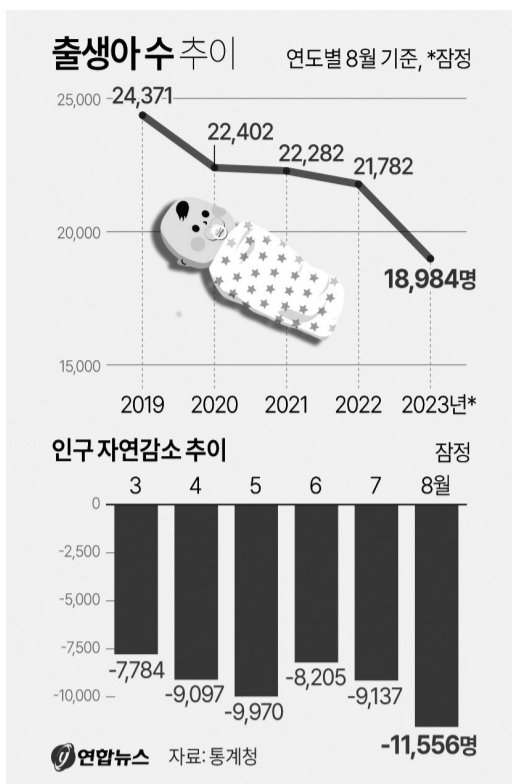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8월 인구는 1만1천556명 자연감소했다. 인구는 2019년 11월부터 46개월째 자연감소를 기록하고 있다.

8월 혼인 건수는 1만4천610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천108건(-7.0%) 감소했다. 혼인 건수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은 작년 8월(6.8%)부터 오름세가 이어져 올해 1월(21.5%), 2월(16.6%), 3월(18.8%)에는 큰 폭으로 늘었다. 4월(-8.4%)에 줄어든 뒤 5월(1.0%)과 6월(7.8%)에 다시 늘었다. 7월(-5.3%)과 8월에는 2개월 연속 감소세다.

통계청 관계자는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코로나19 이후 지연됐던 혼인이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혼인 건수는 시도별로 대구·세종 등 3개 시도에서 증가했고 서울·부산 등 14개 시도에서 줄었다.

8월 이혼 건수는 8057건으로 1년 전보다 169건(-2.1%) 감소했다. 이혼은 대구·인천 등 10개 시



도에서 증가했고 서울·부산 등 7개 시도에서 줄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남진·안세영 '자랑스러운 전남인 상' 수상

### 전남도 '도민의 날' 기념식...3개 분야 6명 시상

가수 남진과 배드민턴 국가대표 '안세영'이 '올해의 자랑스러운 전남인 상'을 받았다.

전남도는 25일 도청 강대중강당에서 '제 27회 도민의 날' 기념식을 열고 '자랑스러운 전남인 상'을 시상했다.

올해 자랑스러운 전남인 수상자는 강도용(새한국우계농업경영인 전남연합회장)과 박기영(순천대 교수(경제 분야)), 관광·문화·체육 분야 가수 남진과 배드민턴 국가대표 안세영(관광·문화·체육 분야), 문성운(전남자치지원 전남기 관장과 박인호(목포한국병원 원장(사회봉사·안정 분야))이다.

강도용 연합회장은 일생동안 농민의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했고 박기영 순천대 교수는 전남의 바이오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며, 남진은 오랫동안 대한민국의 대표가수로 전남을 알렸다.

안세영은 세계대회와 황제우 아시안게임을 통해 전남 체육인의 위상을 높인 공로를 인정 받았고 문성운 관장은 37년 동안 사회복지 현



남진

안세영

장에서 보호아동의 복지향상에 헌신했으며 박인호 원장은 지역으로 발전을 힘쓴 공이 크다. '자랑스러운 전남인 상'은 1997년부터 시작해 올해 27년째를 맞는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상이다.

매년 전남 발전에 기여하고 전남인의 긍지와 명예를 드높인 도민과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22개 시군과 온라인 추천을 받고 역대 수상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한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디자인엔터테인먼트 학생들에게도 인기 제10회 광주디자인엔터테인먼트의 폐막이 15일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5일 복귀 융복합 전시관을 찾은 광주 금호중앙중 학생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나영주 기자 mjna@kwangju.co.kr

## 목포대 "순천대와 통합의대 신설 지지한다"

### "양 지역 상생 점점 마련...전남 의대 신설 논의 진전 있을것"

국립목포대학교는 전남도 국립 의과대학 신설과 관련한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 의과대학 신설을 추진하는 안(10월25일자 1면)을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24일) 김 지사의 '통합의대 검토' 발언으로 그간 지지부진했던 전남 의대 신설 논의에 획기적

인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목포대는 평가했다.

목포대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1000명 수준까지 의대 정원 증원을 논의하는 호기를 맞았음에도 전남 의대 신설에 대한 논의는 현재까지 부진한 상태였다"라며, "특히 목포대와 순천대가 의대 유지를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이었지만 김영록 지사의

발언으로 양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접점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국립목포대 송하철 총장은 "목포대-순천대 통합 의과대학 신설 추진 검토는 현 상황에서 지역 갈등을 최소화하여 지역의 영원인 전남 국립의과대학을 유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평가하고, "목포대-순천대 단일 의과대학 추진을 검토해 보자는 도지사님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며, 이를 바탕으로 추후 전남도는 물론 논의, 순천대와 최대한 협력하여 지역의 숙원사업인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반드시 이루어 내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

## 전국장애인체전 개최식 입장권 무료 배부

### 오늘부터 선착순...시청·군청 민원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개회식 11월3일 목포종합경기장

전남도가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 개최식 입장권을 26일부터 선착순으로 무료 배부한다.

입장권은 목포시와 무안군의 경우 시청·군청 민원실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배부한다. 그 외 20개 시·군에서는 시청·군청 민원실에서 1인당 2매까지 선착순 배부한다. 또 개최식 행사 당일인 11월 3일 오후 2시부터 잔여 입장권을 경기장에서 현장 배부할 계획이다.

2009년 제29회 전국장애인체전 개최 이후 전남에서 14년 만에 다시 열리는 이번 전국장애인체전은 전국 17개 시도 선수단과 재미국외외동포선수단 등 역대 최대 인원인 1만여 명이 참가한다.

개회식은 목포종합경기장에서 11월 3일 오후 4시30분부터 문화예술공연 등 사전행사로 시작한다. 이어 오후 5시부터 개식 선언, 선수단 입

장, 대회기 게양, 선수·심판대표 선서, 성화 점화 등 공식행사가 진행된다.

공식행사 주제공연은 '높이 퍼져라 전남의 소리 울림!'이라는 주제로 전남의 소리, 몸으로 내는 소리 등 가치 있는 소리가 모여 차별과 편견을 이겨내 화합의 장을 만들고, 화합으로 만들어지는 모든 소리를 비주어로 표현한다.

주제공연 종료 후 성화 점화를 끝으로 공식행사가 마무리된다. 오후 6시부터는 축하공연도 이어진다.

강인중 전남도 전국체전기획단장은 "은 국민의 감동과 감탄을 자아내는 최고의 멋진 무대를 준비했으니 전국장애인체전의 시작을 알리는 개최식이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은 11월 3일-8일 6일간 주 개최지인 목포를 중심으로 12개 시·군 38개 경기장에서 31개 종목으로 분산 개최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

## 못 받은 돈 회수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잔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사안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 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복합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 담양 천주교공무원묘원 분묘개장 공고(2차)

장사함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 제19조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거나 신고하지 아니하여, 만약 공고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에 의거 공고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전남 담양군 월산면 광암리 산27천주교공무원묘원
2. 분묘구수: 13기
3. 개장대상: 전남 담양군 월산면 광암리 산27천주교공무원묘원
4. 개장대상: 공소기간 경과후 관계법률에 따라 관할법원 허가 취득 후 공고자 임의개장. 개장후 화장 불인
5. 안착대상: 전남 담양군 월산면 광암리 산27천주교공무원묘원
6. 안착기간: 안착 후 10일
7. 공고기간: 최초 공문발령일부터 3개월
8. 공고인: 광주천주교공무원묘원 광주지역묘지운영위원회 위원장
9. 신고처: 천주교공무원묘원 광주지역묘지운영위원회 담당(062-227-7124) (광주광역시 서구 태평로23, 천주교공무원묘원)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합니다.  
2023년 10월 26일  
광주천주교공무원묘원 광주지역묘지운영위원회

### 채권신고공고(2차)

당 회사는 2023년 10월 06일 주주서면결의로 해산 결의하였으므로 당 회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2023년 12월 13일까지 그 채권액을 당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일내에 신고가 없으시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10월 26일  
영광해상통력발전 주식회사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천년로 1432, 2층  
청산인 박종호

## 군산시 수송동 7층(상업지구)매매

840㎡ 바닥628㎡ 대경원들 의료기관4개입주 메디컬빌딩

월 4천만원, 수익률 6.3%  
은행 36억5천.보10억

매매가  
86억 (현금39억6천만원)

010-3646-8700(직거래)

kwangju.co.kr  
**光州日報**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062.227-9600

### 주식분할로 인한 주권제출공고

본 회사는 2023년 10월 24일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주주총회의 서면결의로 1주의 금액 금10,000원의 주식 1주를 분할하여 1주의 금액 금100원의 주식 100주로 하기로 하였으므로 주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분은 본 공고 게재일로부터 1개월내에 주주권을 본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26일  
주식회사 승경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로 276-29 (화지동)  
공동대표이사 오승만  
공동대표이사 송경식

### 해산 및 채권제출공고(1차)

당 회사는 2023년 10월 18일 사원총회결의로 2023년 10월 20일 해산 할 것을 결의하고 현재 청산절차를 진행 중인 바, 당 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분은 본 공고일부터 2개월 내에 그 채권액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 내에 채권신고가 없는 경우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6일  
유한회사 화성컴퍼니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126, 203동 1205호 (화정동, 대주모에)  
청산인 위길화

**光州日報**

지국안내

북구	• 동 광 266-1920 • 문 흥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안 222-8171 • 영 신 571-7658
동구	• 오 지 266-7601 • 동 흥 433-1503 • 우 신 433-1503
남구	• 남 광 673-6836 • 동 명 222-9054 • 동 부 225-6001 • 중 명 222-9054 • 중 정 222-8171
서구	• 남 부 673-6836 • 백 은 651-1833 • 봉 선 673-6836 • 송 화 675-6605 • 진 명 671-7276
광주	• 광 천 382-5788 • 상 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윤 천 376-7153 • 치 평 376-6511
광안	• 광 안 603-0311 • 화 정 369-1625
광진	• 문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형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신 944-0444